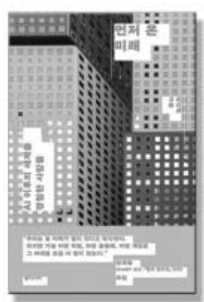


# ‘AI 시대’ 알파고가 남긴 교훈 인간은 ‘창의적 존재’인가

저널리스트 출신 장강명 ‘먼저 온 미래’ 르포르타주 출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바둑계는 이미 ‘미래’를 통과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장강명은 전·현직 프로 기사 30명, 바둑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하며 인공지능이 예술과 전문가의 세계에 어떤 균열을 일으켰는지 파고든 르포르타주 ‘먼저 온 미래’ (동아시아)를 출간했다.

알파고 이후 바둑계 격변  
기술이 흔든 삶 가치 조명  
인문학상상력·가치 판단 등  
토대로 미래 질서 재구성

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탐구해온 저널리스트 출신 저자는 바둑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문학, 예술, 나아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를 냉정하게 조망한다. 알파고가 보여준 창의적인 수는 단순히 게임의 승패를 넘어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의성의 개념을 뒤흔든다. 저자는 “AI는 인간의 전문가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와 자부심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바둑계는 알파고 이후 체계를 전

면 수정해야 했다. 평생을 바쳐 익힌 이론을 지우고 인공지능에게 다시 배우는 일이 프로기사들에게 요구됐다.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예술과 철학으로 여겨지던 바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이세돌 9단은 은퇴를 선언하며 “내가 배웠던 예술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이야기했다. 저자는 문학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다. 창의적인 장편소설을 매일 수백 편씩 쓰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문장력보다는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지닌 인간 작가가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결국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예술과 노동,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다. 이 책은 ‘인간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변화의 파고가 이미 다가왔음을 상기시킨다. 기술 도입의 확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바둑계에서도 AI를 활용해 급속히 실력을 끌어올린 신예들이 등장했고, 반대로 자신의 장기를 잃어버린 듯한 허탈감을 호소하는 기사들도 생겨났다.



저자는 이같은 양극화가 AI 보급의 한 단면이며, 기술을 장악한 소수 기업이 특정 업계의 생태계를 좌우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 ‘도구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기술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구조와 가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 소셜미디어처럼 AI 역시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AI 시대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긴다’는 낙관론을 향해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와 자부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다. 바둑계에서는 프로기사의 견해가 아니라 ‘AI 추천수’를 전달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실력이 향상된 기사일수록 ‘AI 치팅’ 의혹을 받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책은 기술 개발에 대한 윤리적 성찰도 요구한다. 신약 개발에서 임상시험이 필수이듯, AI도 사회적·제도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국제적 협약과 제도적 견제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술은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견제하는 인문학의 상상력과 가치 판단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가치가 기술을 이끌기를 바란다. 가치 있는 기술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며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을 겪고 있다. AI가 보여준 냉정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자리’는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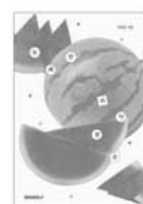
## Q 새로 나온 책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 저  
이 책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기존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탐색한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금융 시장을 전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예측하며 대한민국 부활의 길을 모색해온 저자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스·2만2천원



▲전쟁과 음악=존 마우체리 지음, 이석호 옮김  
지휘자 존 마우체리가 신작 ‘전쟁과 음악’을 통해 클래식 음악사에서 사라진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비밀을 파헤친다. 1900년 어느 날 저자는 “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히틀러가 금한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30여년 세월 동안 그는 음반과 연주회, 기고문, 연설, 미디어 출연,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네 명의 독일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 파울 힌데미트, 쿠르트 바일을 꼽으며 그들의 음악 인생과 저평가된 작품을 조명한다. /에프코·2만5천원



▲유쾌한 위터멜론=차정은 저자  
시집 ‘유쾌한 위터멜론’은 작가의 세 번째 시집 ‘여름에는 상처가 제철’이라는 도서에 미공개 시 (5부)와 작가의 말을 추가했다. 작가의 첫 작품 ‘토마토 겹까면’이 한여름처럼 뜨겁고, 타고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집이라면 ‘유쾌한 위터멜론’은 반대로 사랑이 끝난 다음 추추하고 짹짹한 추억, 상처처럼 아프고 뒤틀려버린 사랑을 이야기한다. 뒤틀려진 상처가 모두 낫고 문지를 수 있게 된 순간 또 다시 찾아온 달큰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권의 시집이다. /부크크·1만1천원



▲걱정될 땐 어떻게 할까요?=케이티 데이니스 글, 에이미 월콕스 그림, 클레어 모건 디자인, 송지혜 옮김  
이 책은 아이들이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풀어주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6가지 주제에 여러 개의 설명이 연결돼 ‘걱정’에 관한 총 33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은 플랩을 열어 보면서 누구나 걱정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걱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책은 걱정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며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어스본코리아·1만3천원

## 세대와 경계 넘어 詩로 이어진 만남

동인 시밀레 첫 시집 ‘별한 자리 말갈다’ 출간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과 평론가들의 동인 모임 ‘시밀레’가 첫 번째 시집 ‘별한 자리 말갈다’ (작가마을)를 펴냈다. 시밀레는 시인 허충순, 민병일, 배태건, 원무현, 김해경, 이현주, 김곳, 배재경과 문학평론가 정훈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친목 중심의 모임이다. ‘시밀레’는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리’는 뜻의 음악 용어에서 차용한 이름으로, 50대에

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문인들이 빈틈없이 지속해온 만남을 반영하고자 지어졌다. ‘시’를 한자 ‘詩’로 표기한 것은, 시의 마당에서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시집에는 허충순, 배태건, 원무현, 김해경, 이현주, 김곳, 배재경 시인과 정훈 평론가의 대표작 각 5편이 수록됐다. 또한 민병일 시인의 시론 ‘김동명 시의 시대적 명징성



에 대한 앤솔로지’도 함께 실렸다. 참여한 시인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녔다. 허충순 시인은 다도와 꽃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고, 민병일 시인은 부경대 명예교수이자 미학자다. 배태건 시인은 법학박사로 문단에 늦게 진입했으며, 원무현 시인은 국제봉사단체인 (사)아름다운 사람들 대표다. 김해경·이현주·김곳 시인은 부산시인협

회 사무국장 및 ‘부산시인’ 편집장 등을 역임했으며, 배재경 시인은 계간 ‘사이판’의 발행인이다. 정훈 시인은 부산일보 신춘문제를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이번 시집은 문학적 이념이나 사조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동인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구성원들은 “문학 이전에 사람이 우선이고, 그 사람의 바탕 안에서 시밀레가 있으며 각자의 문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책을 통해 동인지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며, 그저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함께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밀레는 향후에도 연 1~2회 작품집 발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